

I. 화법과 작문 접근 방법.

0.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의 경우 옳은 선지-> 틀린 선지 순으로

- 화작의 경우 옳은 선지의 단서가 명확할 경우가 대다수이다. 수능 시험은 확실한 오답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뇌피셜로 틀린 선지를 긋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본격적인 접근 방법>

1. 글 성격 파악 (건의, 토론, 발표, 수필형, 라디오 등등..)

- 기출 분석을 할 때 글 성격에 따른 출제 의도, 빈출질문, 행동영역들을 공부해왔다. 따라서 세트문제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위해 전체적인 글 성격을 가장 먼저 파악한다.

2. 질문 파악

- 화작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유형 Set 로는 다음과 같이 있다.

- ① 글쓰기 기법, 자료 활용, 반응
- ② 찬/반 입장, 말하기 방식, 토론의 결과
- ③ 초고 반영, 자료 활용, 고쳐쓰기
- ④ 서술상 특징, 반응, +@

각각의 질문유형에 따라

1. 지문에서 집중해서 읽어야하는 point가 다르므로
2.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ox point가 다르므로
질문 유형을 빠르게 스캔하고 가는 것이 좋다.

EX)

1. 발표 문제의 청자 반응을 따질 때 내용 상의 문제인지 형식 상의 문제인지를 체크하고 가는 것이 지문을 읽을 때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한다.
2. 작문 문제의 자료활용의 ox point는 크게 해석의 적절성과 활용의 적절성만 확인하면 된다. 이 두 관점에서 문제를 살피는 스탠스를 취한다.

3. 작문의 고쳐쓰기 과정은 응집성, 통일성, 완결성 이 3가지를 평가한다. 통일성 부분을 확인할 때는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 목을 살짝 뒤로 뺀 다음에 시야를 넓혀서 글의 원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완결성 부분을 확인할 때는 ‘목적을 고려하여~’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3. 읽는 과정

①P-S , Q-A 형태를 주목하자.

- 흔히 구조독해라고 불리는 것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러나 화자 역시 간단한 독서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지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글이다. 따라서 지문의 목적이 문제해결 또는 질의응답이면 주목할만 하다. 대표적으로 P-S, Q-A가 있는 것이지 ①의 핵심은 화법과 작문은 독서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목적성을 가진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그 지문의 theme를 잘 알아차리자는 것이다.

② () 옆을 주목하자. - 화법 파트.

-말 그대로 () 주위를 주목하자는 것이다. 화법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말을 하는 방법이다. 이를 잘 이해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수능 국어 시험지는 음성이 첨부되어있지는 않다. 따라서 대본이 텍스트로 주어지고 텍스트를 실제 말하는 방법 등은 ()주위에 표현되어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법 문제를 낼 때 () 주위의 정보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③ 대화 사이의 관계를 간략하게 O/X 표시해주자.

-3,4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토론, 토의,협상 등과 같은 의견 나눔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갈 것이고 대화 속에서 앞 사람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부분적으로 찬성하거나, 추가 의견을 덧붙이거나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문제에서 물어볼만한 관점은 지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의 말이 나올 때 앞 사람의 말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O X로 표현해놓자. 문제 풀다가 다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할 때 꽤나 용이하다.

ORbi 송도 보내줘.

④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크게 표시하자.

-국어 문제를 풀다보면 뭘 정보가 되게 많다. 독서의 경우 특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지만 화작의 경우 글의 목적에 따라서 지문 속 단체, 토론, 등의 특정한 결론, 결국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최종 결론이 아닌 중간 결론들이 지문 속에서 준비해 문제를 푸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고 이는 문제에서도 종종 나오는 함정이다. 따라서 결국 애네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지문을 다 읽고 크게 동그라미 쳐 놓자. 그럼 최소한 지문의 결론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다.